



아들과 땅

©아세르 인트레이터, 2007년 3월 23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속한 왕국이자 땅에 속한 왕국으로 보여집니다. 이 왕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아들과 땅에 두신 목적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 아들과 땅이라는 말을 내포한 일곱 구절들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서는 무언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왕국, 십자가 수난, 부활, 하늘(천국), 지옥 등을 계획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분께서 원하신 것은 이미 태초에 그분의 생각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과 땅을 창조하신 것은 바로 아들과 땅에 그 각각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아들과 땅은 다 좋았으며, 매우 좋았습니다. 문제는 사탄의 반란과 인간의 죄로 인하여 들어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죄악적인 것과 사탄적인 것들은 다 없어질 것이고, 아들과 땅은 각각이 지닌 마지막 목적에 부합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5:16

아들은 여오와의 아들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 구절은 권안의 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에게 오랜 기간 동안 세상을 위임하셨습니다. 랍비들은 이 구절을 '2 층 아파트' 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그리고 천사들은) 아파트 위층에, 인간은 아파트 아래층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끔씩 방문하러 오시는데 사다리를 타거나 계단(창세기 3:8, 18:1, 18:21, 28:12, 출애굽기 3:8)을

통아여 내려오는 사람과 비슷한 강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아래층의 열쇠는 인간의 손에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세상을 소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대략 6천년 정도의 기간 동안 위임시켜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전세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이 만일 제 집을 방문하고자 한다면 그는 제게 전화를 걸고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집의 열쇠가 제 손에 있기에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65:17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서는 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지금의 우주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며 되찾으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5 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땅이 정결케 될 것이나 자연의 체계는 지속될 것이고 그 체계는 소자연적으로, 놀랍게 개선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차이는, 노아의 홍수 이전과 이후 세상 사이의 차이입니다(베드로후서 3:5-12). 요한계시록(21 장-22 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는 것은 이사야 65 장에 부가적인 계시를 선사하는 것입니다. 그의 관례대로, 요한은 다른 이브리 선지자들이 쓴 말씀들에 영적 통찰을 선사합니다. 그는 이미 선포되었던 말씀들에 특징을 추가하지만 그 말씀 자체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이사야는 땅의 관점, 요한은 하늘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이 두 각도로 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3, 5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오늘날 세계에는 많은 불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도덕적인 분이시므로 이 불의한 요소들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정결한 자는 지금 있는 것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는 종파들은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두고 영원이 이곳을 떠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어떠한 방법으로 정의를 가져오실 수 있는지, 악인들을 몰아내시고, 의인에게 상 주시며, 그리고 땅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지 보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간단하게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부정하며, 다른 신비적이고 비육체적이며 알려지지 않은 장소를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힌두교 신자들과 뉴에이지 신자들이 니르바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불행이도, 이브리 세계의 시야가 기독교 세계의 시야로 인한 옮겨짐을 인해 마지막 시간과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대부분 기독교인들의 시야는 성경의 묘사보다는 신비적 이교도들에게 쏠려 있습니다.

신비주의는 세상에서 영적인 것으로 도피하는 도피주의인 반면, 성경적 시야는 자비가 넘치는 창조자로부터의 영적 및 육적 세계의 회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10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기원, 방향, 그리고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시작합니다. 그다음 우리들에게 옵니다. 최종적으로 이것은 땅을 정복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단계적으로 옵니다. 작은 것에서 크게 됩니다. 이것은 안에서 밖으로 성장합니다(마태복음 13:31-33). 하나님의 왕국은 침노하는 것이며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오의를 가진 침략이기는 아나, 침략 그 자체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정부가 다스리는 왕국을 건설하시게 위하여 잠시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스리고 군림하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누가복음 19:12).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구원을 마치 왓째 보험 혹은 항공 티켓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께는 왕국을 소유 증명서와 정부 법률로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위의 것이었지만(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나라가 임하게 하는 기도), 그것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말로 구성된 기도일 것입니다. 한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도를 언급할 때에 그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않습니다.

'유대인의 기도문은 모든 예배에서 '알레이누' 라는 말로 끝나는 것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 샤다이의 왕국으로 이 땅을 회복(혹은 고치는 것)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18

아들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서는 신이자 인간이십니다. 따라서 그의 권세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포함합니다. 하늘에 대해 가지신 그의 권세는 그의 신적 계통에 의한 것이며, 땅에 대해 가지신 권세는 그의 육적 계통에 의한 것입니다. 복음은 그의 이중성과 이중 권세에 의해서 효과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와서 이 땅에서 물리적인 몸을 지니시고 태어나셨습니다. 그 분께선 물리적으로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승천하셨고, 어느 날 승천하셨던 것처럼(사도행전 1:11) 돌아와서 다시 한번 감람산에 그 발을 디디실 것입니다(스가랴 14:4).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제로 돌아오실 것과 그분이 천년 간 군림하실 것이라고 쓰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육체적 고통을 조롱하는 것이며 그분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문자로 명백하게 기록된 약속의 성취가 곧 메시아의 통치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보기 어려워한다는 사실에 당혹해 합니다. 수백이나 되는 예언들을 외면하는 것은 곧 지금 위험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 예언들이 단지 하나의 신약 증파에만 적잖은 것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10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골로새서 1:16 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불행히도 하늘과 땅이 서로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목적인 하늘과 땅의 연합인 것입니다. 랍비적 전통에는 인간이 하늘에 선한 영적 의향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는 신의 이름인 여오와의 칭호를 융합시킨다는, 즉 하늘에 서신 여오와와 땅에 서신 여오와의 연합을 이루어 낸다고 하는 또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그리고 진실된 영으로 채워진 상태에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 세계는 하나로 될 것이며, 그것은 하늘에서와 땅 둘 다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하나로 될 것입니다(스가랴 14:9). 왕국의 반만 정까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늘 없는 땅의 부분만을 양했습니다. 교회는 단지 하늘만을 보고 땅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선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동시에 교회의 머리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두 가지 것들을 얻었습니다. 바로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모두인 것입니다

번역: 고병연